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5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잠언·마태복음·마가복음
구역예배·G.B.S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잠언 12장 ~ 잠언 14장
- 14 1과 지성소를 향하여
- 22 매일성경묵상 잠언 15장 ~ 잠언 20장
- 30 2과 세상에 첫 응사
- 38 매일성경묵상 잠언 21장 ~ 잠언 26장
- 46 3과 시날 평지에서
- 54 매일성경묵상 마태복음 23장 ~ 마태복음 28장
- 62 4과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70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1장 ~ 마가복음 6장

5 May 2014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제4차 삼천리 이런이 - 이번이 주말	5 삼천 15장	6 삼천 16장	7 삼천 17장
11	12 삼천 2장	13 삼천 22장	14 삼천 23장
18	19 미가복음 23장	20 미가복음 24장	21 미가복음 25장
25	26 미가복음 1장	27 미가복음 2장	28 미가복음 3장
제5차 삼천리 복화 컴퍼니스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참언 12장

2 참언 13장

3 참언 14장

8 참언 18장

9 참언 19장

10 참언 20장

15 참언 24장

16 참언 25장

17 참언 26장

22 마가복음 26장

23 마가복음 27장

24 마가복음 28장

참언 십자가 헌배환스

29 마가복음 4장

30 마가복음 5장

31 마가복음 6장

교회 주요 일정

5월 4일

제1회 공헌식
어린이·아동부 주일

5월 24일

청년 십자가 헌배환스

5월 28일 ~ 29일

제8차 십자가 헌배 환스

학교 주요 일정

- ①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5월 26일~28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감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총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작가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치·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⑪ 장로·안수집사·권사·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문화적 욕구 충족이요, 사람의 지혜의 집약체인 세속적 문화는
사람들을 욕망에 대한 환상과 육체적 쾌락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영혼을 팔아
세상의 지혜를 삼니다(약 1:14).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 낸 인류의 악한 문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 당할 인생들에게(잠 7:22~23) 참된 구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고전 1:18).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이거 2冊
읽어주세요

HOLY BIBLE

●●●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무절제한 말은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혜로운 말은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18절). 우리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6절).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입술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모른 채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 12:19)

Truthful lips endure forever, but a lying tongue lasts only a moment. (Prov. 12:19)

· 악인의 말(6절) : 거짓말, 중상 모략 등을 일삼아 타인의 재능과 열망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탄의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새벨은 나뭇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웠다(왕상 2:13).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6월 26일-28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3장 / 찬송가 · 204장

●●●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이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저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1절).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이 성숙된 인격체로 자라갑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기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답해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예”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잠 13:13)

He who scorns instruction will pay for it, but he who respects a command is rewarded. (Prov. 13:13)

• 망명되어 얻은 재물(13절) : 망명되어서는 문자적으로 ‘한번에, 한계’라는 뜻이다. 즉 한꺼번에 수고하지 않고 불확실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허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등을 대조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26~27절).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파멸로 치달게 됩니다(8절).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성급하여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16절). 잠언은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잠 22:9),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변호해 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잠 31:9).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갈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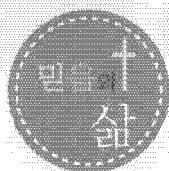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잠 14:2)

He whose walk is upright fears the LORD, but he whose ways are devious despises him. (Prov. 14:2)

•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10절) :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야 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나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궁극적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권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직 예수로 인하여

새벽 6시. 이젠 켈 만도 한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의 기저귀가 의심스러워 손을 대는 순간, 아이의 눈이 번쩍 떠진다. 묵직한 기저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잠에 흠뻑 취해서였는지 아이는 기저귀를 갈아 달라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그냥 참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녀석, 오줌 엄청 썼네.” 나의 말을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나도 따라 웃는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고 귀한 어린 생명을,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이 어린 양을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에녹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구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에녹이가 태어나서 34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예배 시간 내내 보채지도, 칭얼거리지도, 울지도 않는 에녹이를 보며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예배하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녹이가 참된 예배자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에녹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에녹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시아버지와 고모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에녹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박혜선(집사, 9교구)

1

주간총회에 격려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지성소를 향하여

[초점]

하나님의 치해로 지성소에 들어가라

[찬송]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39장 저 뵈는 본향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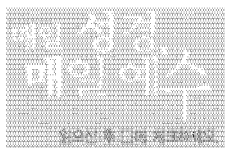
[본문]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यो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4 주일

5 월요일

□ 잠언 16장

6 화요일

□ 잠언 16장

7 수요일

□ 잠언 17장

8 목요일

□ 잠언 18장

9 금요일

□ 잠언 19장

10 토요일

□ 잠언 2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확신
은 곧 그의 나라”(히 10:19~20).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식탁의
교제 안으로 적인인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동일한 형제로 나아감

※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 10:19 _____

※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참고
 하세요.)

엡 2:11~13 _____

세상 사람들은 혈통과 신분과 경제적 차이 등을 내세우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서로 교제하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성찬의 식탁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감

※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 10:19 _____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 자신들의 확신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장된 안전함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에는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는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쁘이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롬 3:25~26 _____

회장 가운데로 나아감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의거한 행위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새로운 은혜언약을 힘입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용을 담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대로 써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③ 청년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 대학·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소서.

후히 드릴 것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9~10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6~7

본문 · 잠언 15장 / 찬송가 · 374장

●●● 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말 한 마디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한 마디의 말로 큰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말 한 마디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실족 시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은 말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13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3절).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매우 열악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10~11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 또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길 소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16)

Better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wealth with turmoil (Prov. 15:16)

• 스올과 아바돈(11절):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음' 혹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나타낸다. 특히, 아바돈은 신약 성경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 혹은 무저갱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눅 8:31, 계 9: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모시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아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6장 / 찬송가 · 87장

●●●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4절)는 말씀은 여호와와의 주권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아함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악인도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을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인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은 속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6절).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자와 진리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 경건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 16:6)

Through love and faithfulness sin is atoned for; through the fear of the LORD a man avoids evil. (Prov. 16:6)

• 왕의 회색은(15절) : 고대 진해 군주 국가에서는 왕의 부당한 노예화로 인해 두고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자비롭게 왕을 보좌하여 선정을 베푸는 때에 왕자는 왕의 얼굴에 회색을 주어 온 백성에게 온덕을 베풀도록 충성했다.

기도제목 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충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7장 / 찬송가 · 214장

●●●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22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 목적대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기쁨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으며,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잃어버렸던 기쁨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는 기쁨의 절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죄인과 함께 하며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은 잔칫집을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죄로 인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Prov. 17:22)

-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3절) : 우리는 마음 재는구나 질병 등의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원망과 좌절에 사로 잡히기 쉽다. 그러나 성도의 머리맡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마 10:30)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성도를 연단하신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8장 / 찬송가 · 212장

●●●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12절). 교만이 왜 멸망받을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신 8:12~14).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었면서도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골 2:8). 교만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8:12)

Before his downfall a man's heart is proud, bu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Prov. 18:12)

• 재바 뽑는 것(18절) : 이스라엘 민족은 중대한 일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판결을 위해서 재바를 뽑았다. 즉 재바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의혹이나 불만을 표시 없이 최종적 판결을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참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19장 / 찬송가 · 549장

●●●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21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를 통해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 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눅 22:42).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자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 19:23)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Then one rests content, untouched by trouble. (Prov. 19:23)

•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12절) : 팔레스타인 지방은 항상 건조하다. 그러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의해 이슬 방울이 생기게 된다. 특히 이곳은 5월에서 10월까지의 비도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만일 서풍이 싹고 오는 이러한 습기가 없다면 식물은 거의 매달리 버리고 말 정도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땅 자리에 생긴 이슬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기도제목 ① 나의 계획이 아닌 주의 계획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인생의 자량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죄 사함에 두고 계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9절).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제물을 통해서 온전히 죄 사함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 멸시와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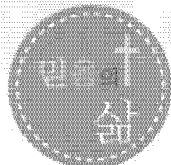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잠 20:9)

Who can say, “I have kept my heart pure; I am clean and without sin?”(Prov. 20:9)

-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와 동불(27절) : 이 절의 번역과 해석은 다양하다. 본문에서 ‘영혼’은 창세기 27의 ‘생기’이다. 여기서 ‘생기’가 ‘여호와와 동불’로 불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내면을 살살이 비춰서 사람을 원전하고 철저하게 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잠 15:11 참조).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고난의 십자가

오늘날 교회의 표시와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본래 사형 도구였다.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저항하는 외국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로마에서는 주로 탈주한 노예, 비밀 폭로, 내란 선동, 살인, 반역 등의 중죄인에게 적용되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십자가형이 정치적인 폭도들의 소요 억제책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잦은 반란과 항거가 일어나 정치적 소요를 일으켰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반역죄로 기소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당시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골고다 언덕에는 세로 기둥 몇 개가 항상 세워져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로 기둥을 매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다. 이때 죄인의 가슴에는 죄목을 쓴 명패를 붙이는데, 나중에 십자가의 머리 부분에 달게 된다. 예수님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쓰여 있었다. 로마 병사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는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였다.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몸서리쳐지는 사형 도구였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하나의 여느 종교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원을 위해 애쓰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말이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찾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축복,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 그 자체다. 고난의 십자가가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임을 보증하고 있다. 갈보리에 세워진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임한 모든 저주와 고통을 흡수하고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주간총회에 개제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세상에 첫 용사

|초점|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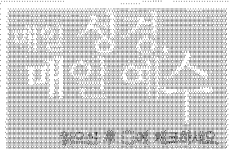
|찬송|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본문| 창세기 10:6~12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삼다와 라아마와 삼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1 주일

12 월요일

□ 잠언 21장

13 화요일

□ 잠언 22장

14 수요일

□ 잠언 23장

15 목요일

□ 잠언 24장

16 금요일

□ 잠언 25장

17 토요일

□ 잠언 26장

“노아의 아들 과 과 의 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창 10:1).

홍수 후에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노아의 기록을 뒤로 하고, 성경은 다시금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 가운데 특이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의 후손, 니므롯

※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함의 후손, 니므롯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창 10:8~9 _____

니므롯에 대한 실제적 묘사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란 이름에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에게 내린 노아의 저주에 대해 함의 맏아들이었던 구스가 몹시도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니므롯이 얻은 칭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 (창 10:8)

'용감한 □□□' (창 10:9)

'세상에서 첫 □□' (대상 1:10)

※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시날 땅에 무엇을 건설했습니까?

창 10:10~12 _____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서 하나님께 맞서려는 세상 나라가 시날 땅에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영적인 묘사

그렇다면 니므롯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한 그는 바벨론의 조상으로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니므롯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불법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적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지극히 높이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받으려고 하는 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후 2:8 _____

영적인 전쟁의 서막

앞에서 미리 말한 것처럼,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장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될 대적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이라는 교만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후손인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을 발달시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무시하는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발달된 전쟁 무기들은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은 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가장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그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용사 중의 용사이시며, 장차 마귀의 권세를 완전하게 물리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은 만주의 □사요 만왕의 □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을 받고 □□□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계 11:15).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인지 가사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계 비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
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
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1.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액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T. 552-8200 / 342, 348 / E-mail. psalms715@naver.com

본문 · 잠언 21장 / 찬송가 · 423장

●●●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13절). 여기서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구제의 손을 펴지 않고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잠언 21장은 이웃을 공홀히 여기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과 끊임없이 자신의 것만 행하기에 바쁜 자를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26절).

예수님께서서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가절하지 말라”(마 5:42)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공홀히 여기며 구제하는 자는 하늘에서의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약 2:13)고 말씀하시며 공홀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공홀히 여기고 구제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45).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 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홀의 은혜를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잠 21:2)

All a man's ways seem right to him, but the LORD weighs the heart. (Prov. 21:2)

• 묵상(1절): 보의 말 하란 뜻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는 주로 겨울에 내렸다 따라서 여름 곡물을 재배하려면 관개시설이 필요하였다. 본절을 직역하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와 손 안에 있다.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정한다. 이 한 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사랑과 공홀의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단
기독교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22장 / 찬송가 · 455장

●●●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를 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랑의 마음을 거스르며 분쟁과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에 대해 상응하는 벌과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욥 5:2 잠 19:19).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을 품는 것을 살인죄로 정죄하시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마 5:21~22).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므로 마음속의 생각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24절). 그 이유는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을 울무에 빠뜨리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자들과 가까이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8~29).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때 분노는 사라지고 평강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22:2)

Rich and poor have this in common: The LORD is the Maker of them all.(Prov. 22:2)

• **지계책(28절)** : 가난(貧賤)의 경계를 묘사한 지계책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각각의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경계표로 각 지파 성호간의 선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계책을 옮기는 것은 타 구역에 대한 침략의 표시이며 신령을 깨뜨리는 일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 법이었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 봉사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쁨 · 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23장 / 찬송가 · 94장

●●●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힘으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 18:3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야?”(요 18:38)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답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혼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23절). 어떻게 진리를 살 수 있습니까? 진리는 돈으로, 또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 13:45~46). 우리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참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과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즉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가득 찼던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의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고, 이 세상에 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잠 23:17)

Do not let your heart envy sinners, but always be zealous for the fear of the LORD. (Prov. 23:17)

·구속재(贖財): 구속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무르는 자’, 곧 가족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써 가까운 친족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돕거나 그들의 죽음에 복수해 주었던 사람이다. 특히 이사야는 이 용어를 13번나 걸쳐 사용하면서 ‘구속주’ 대신에 ‘나눔의 개념을 설명하였다’(사 41:14, 44:26, 63:16 등)

기도제목 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매)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합 1:4)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1절). 즉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요 의인의 고생도 잠깐이며, 악인의 번영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의 소망과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8:31). 두 세계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यो, 방패요,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1~2).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 순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잠 24:1)

Do not envy wicked men, do not desire their company;(Prov. 24:1)

·가시덤불, 거친 풀(1절) :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시 돋친 풀이 흔히 발견된다. 이 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뽑지 않으면 금방 경작지를 뒤덮는 예가 많았다. 즉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향해 매진하지 않고 마음을 태만히 하면, 죄악의 잡초가 자라나서 이미 받은 은총조차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5월 26일~28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25장 / 찬송가 · 518장

●●●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먼 곳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소식은 매우 궁금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마치 갈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시원한 물을 마신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감격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라며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소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을 주는데 반해 복음의 소식은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믿고 기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쁨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잠 25:25)

(Like cold water to a weary soul is good news from a distant land. (Prov. 25:25))

·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20절) : 소다는 보통 새척할 때 쓰는 가성소다를 의미한다. 이것이 초산과 섞이면 아무 약에도 쓸모없는 물질로 변해버리고 만다.

기도제목 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돈독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잠언 26장 / 찬송가 · 495장

●●●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1~2).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14절). 혹 이 말씀과 같이 자기 한일에 빠져있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장래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며 자기를 적당히 합리화하는 타성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며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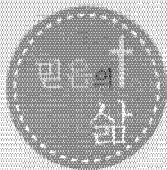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잠 26:15)

The sluggard buries his hand in the dish; he is too lazy to bring it back to his mouth. (Prov. 26:15)

• 돌을 물에 먹는 것(8절): 이 행위와 아리석음은 돌을 물에 북어 고정시킴으로써 발사할 수 없게 한다는 데 있다.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김동화 위령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자들로, 연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My prayers 나의 기도

Author Unknown
작자 미상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나는 힘을 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을 주셨다.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나는 지혜를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다.

I asked for prosperity and God gave me brawn and brains to work.

나는 부유하게 해 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두뇌를 주셨다.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나는 용기를 달라고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넘어서야 할 위험들을 주셨다.

I asked for patience and God placed me in situations where
I was forced to wait.

나는 인내를 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하셨다.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나는 사랑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I asked for favors and God gave me opportunities.
나는 은혜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들을 주셨다.

I received nothing I wanted I received everything I needed.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으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

My prayers have all been answered.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아 왔다.

3

주간총회의 계획된 위임목사님과 설교를 읽으세요.

시날 평지에서

[초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가 되라

[찬송]

찬송가 488장 이 물의 소방 무언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창세기 11:1~4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8 주일

19 월요일

☐ 마태복음 23장

20 화요일

☐ 마태복음 24장

21 수요일

☐ 마태복음 25장

22 목요일

☐ 마태복음 26장

23 금요일

☐ 마태복음 27장

24 토요일

☐ 마태복음 28장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구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해 줍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창 10:32).

노아의 자손들, 즉 함과 셈과 야벳의 족속들은 홍수 후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언어

“온 땅의 언어가 요 말이 였더라”(창 11:1).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 나온 ‘온 땅’은 세상의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흩어져 살았지만, 모든 곳에서 여전히 하나의 공통된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지는 족속들 가운데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함의 후손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날’이라는 땅에 모여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창 11:2 _____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에덴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덴의 동쪽에 성을 쌓았던 가인의 멀어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함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공간적으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멀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언어와 소리를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자신들만의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중심에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함에게 내린 노아의 저주를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던 이들은 노아의 저주를 거부하기 위해 니므롯의 체제 아래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도시와 탑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의 문명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 함의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창 11:4)

첫째, 자신들의 □□□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들의 말은 실제적인 탑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의지이자 교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건설한 문명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흠여짐을 면하기 위한 인류의 타락한 심성이 드러났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건설한 도시와 그들이 쌓은 탑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고, 이렇게 건설된 도시와 탑은 점차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흠물스러운 십자가를 갈보리 산 위에 만들어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행악자들에게 끔찍한 벌을 가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눅 23:33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타락한 인간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문화와 가치와 풍습과 언어가 다른 아들과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 교회가 말하는 하나 됨이 세상이 말하는 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설명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모든 가족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② 총현의 온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하여지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 ③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 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리라

요한복음 13:34~35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8

본문 · 마태복음 23장 / 찬송가 · 90장

●●●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데 급급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악은 감추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데 자신의 존귀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자녀들을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주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보화를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마 23:37)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Mt. 23:37)

• 회개율진제(13, 15~16, 23, 27, 29절) :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는 단순히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엄숙한 심판으로 선언되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연인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회’를 내신 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자숙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를 아실려 보여 준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4장 / 찬송가 · 545장

●●●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5절).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신앙고백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이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신앙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가장 달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 맞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각 개인의 최대의 약점을 이용해 접근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해롭게 행동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활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 (Mt. 24:4)

• 독수리(28절) : 독수리가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모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실도 분명하다.

기도제목 ① 진리를 깨달아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5장 / 찬송가 · 595장

●●●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소속된 종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종입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욕심을 좇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인식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했다면 이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시기에 종된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달란트를 얼마만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와 권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주님이 맡겨 주신 직분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각자가 성전의 귀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Mt. 25:21)

• 한 달란트(10질) :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잘못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그는 하나님께 대해 굳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랑 시키지 않았다. ③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자기 내지는 분개하여 고약하므로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기도제목 ① 나를 종으로 인식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종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6장 / 찬송가 · 520장

●●●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먼저,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36절)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실패를 맛 보아야 했습니다. 성도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롬 8:17).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을 때에는 잘 따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배신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성도 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마 26:36)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Mt. 26:36)

·은 삼십(15절) : 예수께서 은 삼십에 팔리신 것은 ① 구약의 예언(슥 11:12)을 성취시키셨다는 것과 ② 하나님 대속주로서의 예수가 모든 비천한 신분에 처해 있는 자들의 죄까지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 값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① 기도와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7장 / 찬송가 · 317장

●●●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쫓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을 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막 15:43).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 있던 시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단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도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온 몸을 드려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마 27:57)

As evening approached,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Mt. 27:57)

- **스스로 유대어 죽은자라(5절)** : 만일 유다가 예수께서 무죄한 자라는 사실 뿐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悔)만 했다.
- **그와 아리마대(9절)** :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풀라(Phylad)라는 여자로서 남편을 따라 그의 부임지인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온 후 예수를 믿게 된 성도였다고 한다.

기도제목 ①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가 아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태복음 28장 / 찬송가 · 560장

●●●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9~20 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 생애를 바치는 일념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먼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게으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로는 절대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 온갖 소극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목적은 친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전도한 사실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울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 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모든 전도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길이 지키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딤후 1:12).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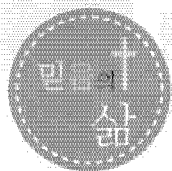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t. 28:19)

• 안식 후 첫날(1절) : 오늘날의 주일을 가리키는 말로서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로 대체되어 지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역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청년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하여 충현의 젊은이들이 천국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기도노트



참된 예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누가 설교하거나 특송(찬양)을 하는가만을 훑어 보며,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교회에 나간다면, 또는 설교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또는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간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찬양이나 설교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만 인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예배의 통로이다. 예배는 드림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면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일에 함께 모이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는 설교자나 찬양대에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것이다. 설교와 성가는 다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는 은혜의 도구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 존 맥아더(John MacArthur)

4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초 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라

[찬송]

찬송가 499장 흠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본문] 창세기 11:5~9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25 주일

26 월요일

□ 마가복음 1장

27 화요일

□ 마가복음 2장

28 수요일

□ 마가복음 3장

29 목요일

□ 마가복음 4장

30 금요일

□ 마가복음 5장

31 토요일

□ 마가복음 6장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과 □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창 11:5).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인 함의 후손들이 흠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설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와의 강림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위들에 대해 사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 2:1~4 _____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신들을 하늘만큼 높이려고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뭍부림칩니다.

여호와와의 판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이요 □□도 □□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창 11:6).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단합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들이 동일한 □□를 사용하는 한 족속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언어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을 담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와의 간섭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 11:7).

□□가 그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치된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섭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그 생각과 계획을 차단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을 흠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은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도시 건설을 멈추었습니다.

창 11:8 _____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에 흠으셨더라”(창 11:9).

여호와와 홀으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홀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과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높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홀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선언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아들을 홀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땅 끝까지 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홀아졌던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십니다.

- ※ 총현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총현교회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며 돕고 있습니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총현교회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소서.
- ② 총현의 온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 가운데에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3~4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5~6

※ (중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중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 F. 342-3481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마가복음 1장 / 찬송가 · 212장

●●●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부패와 타락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눅 3:7~14),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강림을 대비케 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타인의 비난이나 조롱에 맞섬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박하고 정결한 삶으로 호화스러운 옷 대신에 악대 털옷을 입었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했습니다(6절). 또 거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원하는 일에만 열심이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자 못하겠노라”(7절)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높이 받는 위치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운 자만이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마 11:29).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바로 정결과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정결과 겸손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막 1:7)

And this was his message: "After me will com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thi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MK. 1:7)

- **공관복음** : 신약 성경 전한부의 네 책이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것으로 복음서라 불려온다. 마 복음 기록에 처음 나오는 세 책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이를 해설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일컫는다.

기도제목 ① 진리를 깨달아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② 성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2장 / 찬송가 · 542장

●●●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 고침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5절)라는 표현은 이를 뚜렷이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은 병 고침 받은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녔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은 문 앞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 네 사람은 힘들여 친구의 침상을 메어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낮게 해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Mk. 2:5)

•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4절) : 팔레스틴 가옥은 대개가 흙벽돌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한쪽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 있어서 지붕에서 막대한 짐을 옮길 수 있었고 타인이라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용이했다.

기도제목 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옥회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성기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3장 / 찬송가 · 329장

●●●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요 15:16).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14절).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합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골로새 2:9).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막 3:14)

He appointed twelve—designating them apostles—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Mk. 3:14)

- **예루살렘에서 내려온(22절)**: 예수 사건의 전형을 조사하기 위해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일종의 종교 경찰단이었을 것이다.
- **바알새불이 지냈다(22절)**: '히브리어 바알새불'과 '파리들의 왕'의 합성어로서, 원래의 명칭인 바알새불에 대한 용치이자 조롱이든 바알새불은 '고귀한 바알'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은 사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가 귀신들의 왕 곧 사탄이라는 엄청난 모욕을 줬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목회를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4장 / 찬송가 · 371장

●●●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다 곁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35절). 그런데 이 항해 길에 광풍이 닥쳤고 배는 거의 파선 직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결이 일어나 배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절규하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주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곧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명의 길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그것은 끝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가자고 하신 길이며, 그 사명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처럼 끝없는 경중으로 남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 예수님,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막 4:41)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Mk. 4:41)

• 돌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23절) : 복음서는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표현을 많이 담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을 것이다'라는 뜻이지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말은 중요하니 더욱 마음을 써서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보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5장 / 찬송가 · 472장

●●●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심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는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이었으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동네에서 쫓겨나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는 이제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7절) 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쇠사슬이 쇠사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불쌍한 자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돌로 그의 몸을 해치며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그의 주변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 또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후 “알리라”(19절)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막 5:19)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Mk. 5:19)

- 거라사(7절) : 거라사는 크케는 대외불리 땅, 작게는 거라사 성읍에 속한 이방 땅이다.
- 군대(9절) : 이 말은 앞에서는 나 라는 단수로 말하고 뒤에서는 우리 라는 복수로 말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 처는 귀신 중 우두머리가 대표로 예수와 대화했기 때문이다. 군대 라는 말은 8,000명으로 구성된 1개 여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그 광언에게 침입한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파괴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기도제목 ① 버려진 자를 찾아 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전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 동선 · 복지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쁨 · 함양동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마가복음 6장 / 찬송가 · 505장

●●● 제자들의 전도 파송(7절)과 전도 보고(30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수난' (14~2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가 파송되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즉, 그들이 선교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수난 기사를 기술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중심 내용이 '죽음과 부활' 임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이란 '수난의 삶'임을 말해 줍니다. 이는 수난이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중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살임을 잘 보여 줍니다. 세례 요한의 수난은 다가 올 예수님의 수난의 그림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롯은 진리에 대해 달게 듣고 근심했지만, 자신의 제면과 명성에 급급해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홀로 서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으로 인해 시련이 찾아올 때, 해롯처럼 어느 정도 심히 근심하나 세상의 염려와 윤희와 욕심으로 인해 진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삼자가 불붙고 고난을 맞이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그가 실패한 전도자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친' 사명의 완성자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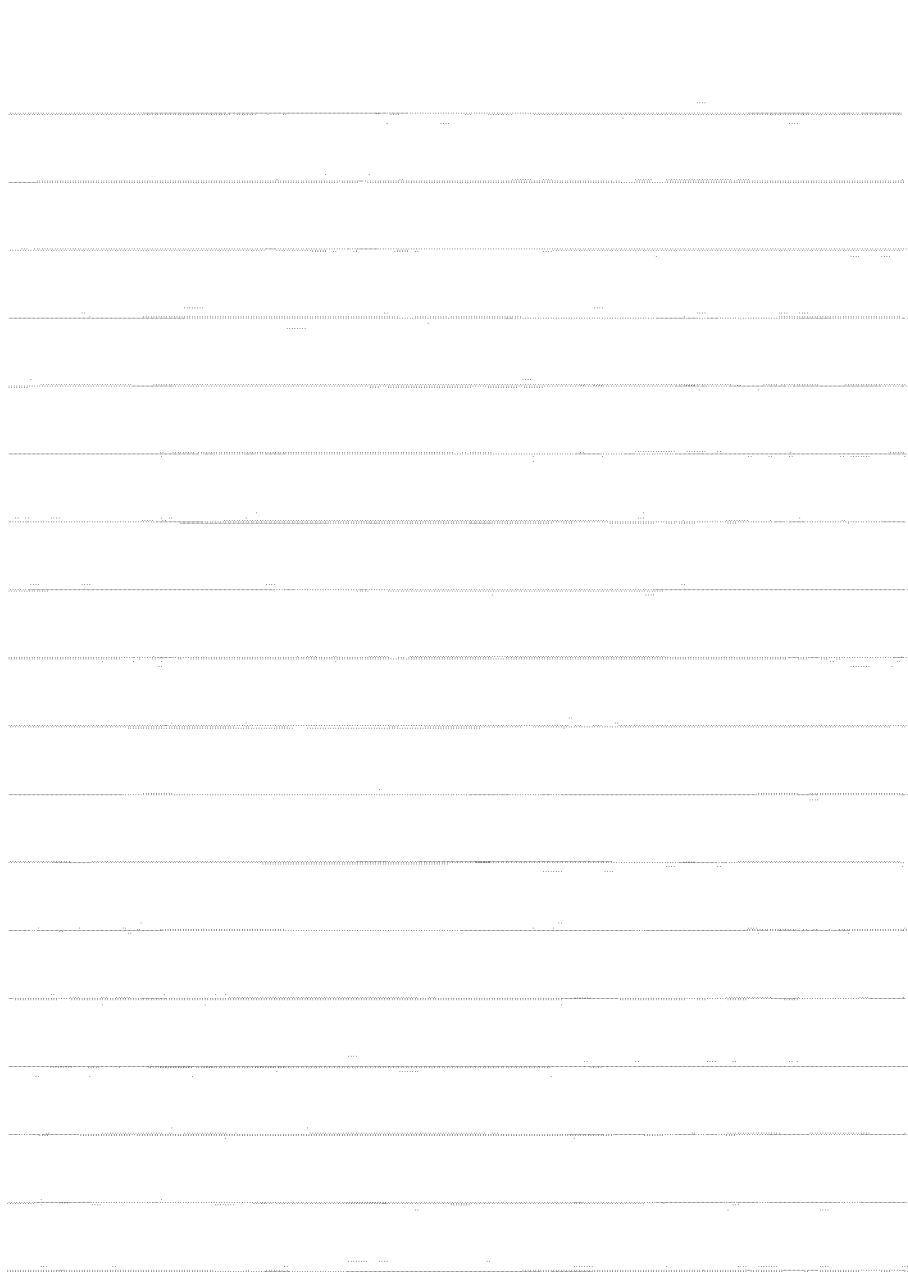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막 6:12)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Mk. 6:12)

• 제자들이 함께 노 젓는 것을 보시고(48절) :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하니 실상 그분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집로 · 안수집사 · 권사·목회자들이 교육을 통해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5월

Copyright ©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원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